

역사적 삶의 종합인 6월 정신

대학의 경우 6월이면 1학기 말 시험을 치루고 방학을 맞게 됩니다. 많은 경우 4월 중순 쯤에는 중간시험도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에서 교부학(敎父學)을, 일반대학에서는 보편적 구원을 위해 '종교의 사회비판적 기능'이라는 주제로 20여 년 동안 강의하며 해방신학을 중심으로 1학기 중 평균 15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들과 함께 시대와 역사 그리고 현실을 고민하며 공동선 실현을 위한 가치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1990년대부터는 매달 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3월에는 26일이 안중근 의사 순국일이기에 안 의사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안 의사 자서전 또는 재판기록 등 관계 서적을 읽고 독후감과 보고서를, 4월에는 4·19국립모자를 참배하고 그 소감과 함께 4·19혁명의 배경과 역사적 교훈을 그리고 5월에는 10·26 재평가와 5·18광주 희생에 대한 역사적 고찰, 나아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민중의 역할을 기술하여 제출하고 가능하면 망월동 묘역을 순례하여 현장체험을 하도록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86년 6월 권인숙 씨에 대한 부친경찰

서 성고문사건과 함께 87년 박종철 군 고문치사조작사건, 이한열 군 등의 죽음으로 촉발된 6·10민주항쟁에 대한 진전과정과 민족사적 의미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매달 학생들의 과제를 읽으면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늘 훨씬 더 큰 결과를 확인했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안 의사의 경우, 막연하게 일본의 침략자 이등박문(伊藤博文)을 사살한 분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교육가, 사상가, 언론인으로 우리 시대의 선각자였다는 점을 깨닫고 학생들은 신선한 자극을 받았다고 술회하였습니다. 또한 4월에는 4·19혁명의 역사적 배경을 종합하여 그 근본 원인이 바로 해방 이후 친일문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친일분자들을 정권의 동반자로 선택한 이승만 자유당 독재의 반민족적 모순과 반민주적 한계 때문임을 분명히 깨닫고 또한 혁명주역들이 바로 학생들이었다는 점에 감격하곤 했습니다.

5·18민주항쟁에 대해서는 박정희 유신독재와 그 후신인 전두환 신군부체제의 비인간적 잔인성을 확인하면서 무엇보다도 미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음을 고백했습



한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니다. 광주의 희생은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의 국제적 시각을 넓히면서 남북일치와 공존에 대한 강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6월항쟁은 어떤 의미에서 안의사의 항일투쟁, 학생들이 주축이 된 4월 민주혁명, 광주 시민들의 희생과 죽음에 기초한 5월 5·18정신의 역사적 종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987년 6월항쟁은 전국 58개 지역에서 약 200여만 명이 함께 한 그야말로 불의에 대한 전 국민적 저항이며 민중혁명이었습니다.

1970~80년대 청년학생, 자유 언론인, 법조인, 문인, 교수, 교사, 노동자, 농민, 시민, 지성인 등 모든 영역의 온 국민이 함께 한, 30여년 반독재 민주화투쟁과 민족의 일치와 화해를 위한 통일운동의 과정에서 저 또한 신학도로서 바로 역사와 현실 속에 개입하신 하느님의 섭리와 구원의 의미를 새삼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6월, 호국영령의 달입니다. 6일 현충일을 비롯하여 10일 6월항쟁 기념일, 15일 6·15남북공동선언일, 25일 민족비극인 동족상잔의 날 등을 맞게 됩니다. 각 기념일에는 나름

대로의 교훈과 가르침이 있고 때로는 그 강조점이 서로 엇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를 통해 종합적 가치 곧 인간의 자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통해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인류의 모든 삶은 바로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배부른 노예보다는 비록 배고프지만 그래도 자유를 지닌 성숙한 인간의 삶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6·10민주항쟁은 바로 온 국민의 자유 의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선언한 날입니다.

이와 같이 6월 정신은 민족에 기초한 역사 의식과 함께 공동선 실현을 위한 선택과 실천이며 역사적 삶의 종합입니다.

6·15공동선언도 6·10민주항쟁의 열매입니다. 민주화와 통일은 늘 진행형입니다. 새삼 <아침이슬>을 노래하며 6월 정신계승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실천을 다짐합니다.

“한 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자, 이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새로 출발합시다. 건투를 빕니다.